

2

미국, 케이블·일반TV 시청 점유율 50% 미만으로 하락

시청률 조사기관 닐슨(Nielsen)의 분석에 따르면, 2023년 7월 미국 시청자의 전체 TV 시청시간에서 케이블TV 및 일반TV의 합산 점유율이 사상 최초로 50% 미만을 기록

자료 TechCrunch, Linear TV viewing sinks below 50% as streaming soars to new heights, 2023.8.16.

- ◎ 2023년 7월 케이블TV 시청 점유율은 전년동기대비 4.8%p 감소한 29.6%로 최초로 30% 아래로 떨어졌고, 일반TV 시청 점유율은 전년동기대비 1.6%p 하락한 20%를 기록
 - 전체 TV 시청 점유율은 ▲스트리밍 서비스(38.7%), ▲케이블TV(29.6%), ▲일반TV(20%), ▲기타 (11.6%) 순으로 조사
 - 불과 2년여 전인 2021년 6월에는 케이블TV 및 일반TV의 합산 시청 점유율이 63.6%에 달했으나 이번 조사에서는 49.6%로 사상 최저 수준을 기록한 것
- ◎ 반면, 스트리밍 서비스는 같은 기간 미국 전체 TV 시청시간 중 38.7%를 차지하며 사상 최고치를 기록
 - 스트리밍 서비스별 TV 시청 점유율은 ▲유튜브(9.2%), ▲넷플릭스(8.5%), ▲훌루(Hulu, 3.6%), ▲프라임비디오(3.4%), ▲디즈니플러스(2.0%), ▲맥스(Max, 1.4%), ▲튜비(Tubi, 1.4%), ▲피콕(Peacock, 1.1%), ▲로쿠(Roku, 1.1%), ▲파라마운트플러스(Paramount+, 1.0%), ▲플루토TV(Pluto TV, 0.9%), ▲기타(5.1%) 순으로 조사
 - 특히 유튜브와 넷플릭스의 시청 점유율이 각각 무려 9.2%와 8.5%에 달해 스트리밍 서비스의 시청 점유율에 가장 크게 기여했고, 프라임비디오는 3.4%로 자체 최고 점유율을 기록
- ◎ 한편, 넷플릭스, 디즈니플러스, 훌루 등 다수의 스트리밍 서비스가 재정 압박을 이유로 요금제 인상을 단행함에 따라 많은 사용자들이 광고 기반 무료 스트리밍 TV(FAST) 서비스로 이동 중
 - 삼바TV(Samba TV)의 조사에 따르면, 최근 미국 사용자 3명 중 1명은 프리비(Freevee), 플루토TV, 튜비와 같은 FAST 서비스에 가입
 - 최근 FAST의 시청 점유율이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면서 유료 스트리밍 서비스는 가입자를 유지 및 유치하기 더욱 어려울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